

'꽃밥' 이 사랑 되면 세상에 기쁨이 충만

이영철 작가 개인전 9월 25일까지 탐골미술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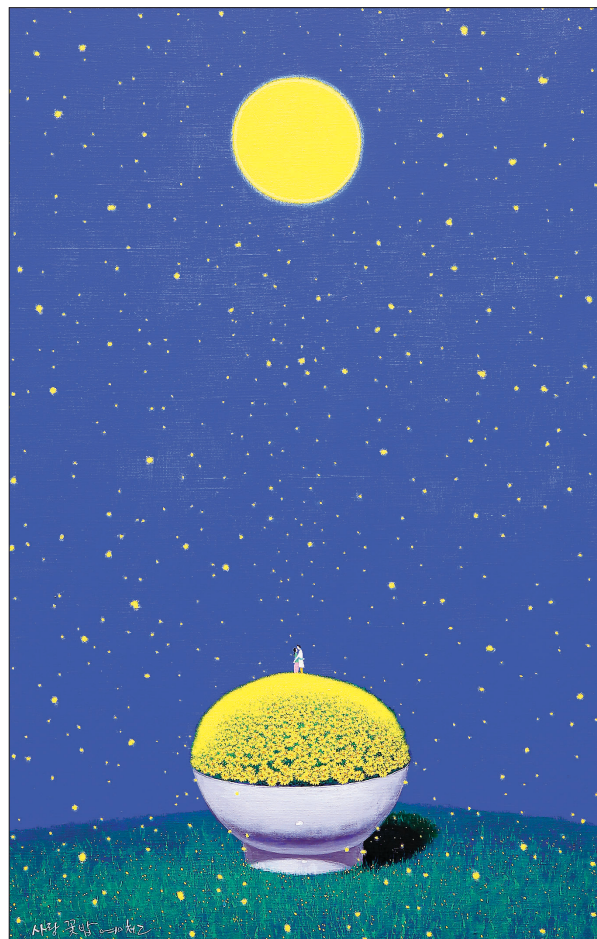
늘 부처님께 아들의 행복을 빌었던 어머니. 화가가 되고 싶었던 아들은 몸이 약했고 두 번의 실명 위기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괜찮아질거라며 자식을 안심시켰다. 정말 그럴까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은 실명 위기를 넘겼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했다.

3년 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전업작가로 어려운 살림을 이어나가던 화가 아들이 그 이름을 조금씩 세상에 알릴 무렵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찾던 김전 청안사를 찾았다. 그가 한번도 보지 못했던 주지스님은 그를 너무나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이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사무쳐도록 느껴졌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세상이 주목하는 작품이 되었다.

법륜 스님의 <날마다 웃는 집>,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의 삽화를 작업한 이영철 작가(57·사진)의 이야기다. 따뜻한 감성으로 어른들의 동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이영철 작가가 특별한 전시를 열고 있다. 9월 25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탐골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 전에서는 인연의 이야기를 소중히 담은 작품 30여 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작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그 사이에 인연을 맺게 되는 여리고 약한 온갖 순수한 생명들과의 교감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꽃, 봄, 달, 고양이 등 따뜻하고도 소중한 소재들을 작품화하는데 이는 지나간 시간, 추억의 한 장면을 퓌 퓌 내 울려 놓은 듯 선명하다. '사랑 꽃밥'은 그의 대표 작품



'사랑 꽃밥'. 그림 그리기를 열망했던 이영철 작가의 사춘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봄·꽃·연인·고양이 등을 소재로
어른들 위한 동화 30여 점 선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실명 이겨내고 전업 작가로 활동
"지금의 삶은 땀, 나누며 살고파"

중 하나로 그림 그리기를 열망했던 작가의 사춘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고등학교 시절,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무척이나 반대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죠. 40일 정도 친구집에서 보내다가 어느날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있던데요. 그때 어머니가 이불 속에 묻어 두었던 밥공기를 꺼내 상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울먹거리며 먹었던 그 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3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함께 묻어 드리며 작가는 그때의 밥이 떠올랐다. 환한 봄날 가신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꽃을 밥그릇 속에 담았다. 천송이 이천송이 꽃이 늘어갈 때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잊혀져 갔다. 그렇게 꽃밥 위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시 만나 젊은 시절의 연인이 되었다.

"이 그림을 작품으로 옮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출판 관계자들이 보고 같이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죠. 그래서 헤민 스님과 출판 작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작가는 나누는 일에 익숙하다. 그는 재능이든 마음이든 나누는. '뿌뿌 친구' 등의 고양이 작품은 작가의 마음씀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5년 전부터 작업실, 공원, 도로 등에 돌아다니는 야생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사서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50마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제는 고양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죠. 작업실 한편에 고양이들의 휴식처를 만들어 두기도 했어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양이 밥 때문에 휴가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도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헤민 스님의 마음치유학교 등에 대형 작품을 기부했다. 세상을 향한 희망이다. 진정한 마음을 퍼올려 세상을 향한 빛줄기를 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나누며 살 것이라 다짐한다.

"저는 두 번의 실명 위기를 겪으며 고도 근시가 됐어요. 렌즈를 끼고도 교정시력이 0.5를 넘지 못해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지금 사는 세상은 덩어리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많이 가져야 할 이유도 없죠. 제 그림을 많은 분들이 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림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세상과 더불어 나누며 살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산불교대 불교미술학과 불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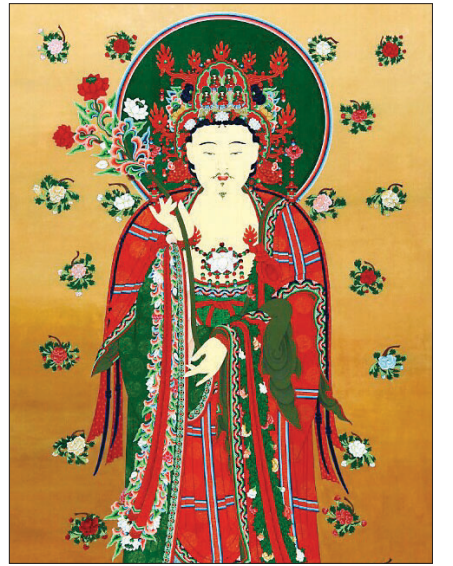
9월 22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서

제5회 동산불교대 불교미술학과(지도교수 법인) 불화 전시회가 9월 22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미술학과 졸업생들과 재학생 13명의 졸업전을 겸한 이번 전시회는 황경숙의 '석가모니 후불탱화'와 전필무의 '아미타내영도', 한상숙 미술학과 동문회장의 '울곡사의 보관(寶冠) 노사나래불도' 모사본 등의 작품 25점과 소품 15점이 함께 전시된다.

지도교수 법인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불교미술학과 학생들이 3년여의 시간을 구도자의 자세로 수행하듯 마음속에 새겨진 부처님의 형상을 손끝으로 꽃피운 결과물이다.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화를 통해 내면의 부처님과 만나고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배운 불교 공예를 점목, 불자들의 가



한상숙의 '노사나래불도' 모사본(부분)

정에도 소장할 수 있는 소품들도 다양하게 전시할 예정이다. (02)733-4448

정혜숙 기자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 '안횡비직' 전

9월 20일까지 대구 범어 도서관 갤러리서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의 제10회 개인전 '안횡비직'(眼橫鼻直)전이 대구 범어 도서관 갤러리에서 9월 20일까지 열린다.

'눈은 옆으로 코는 아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선의 정신을 설치미술로 표현한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선진 스님은 "이번 전시 주제는 '안횡비직'(眼橫鼻直)으로 눈은 가로로 생겨 있고 코는 세로로 생겨있다는 말이다. 모든 부처님들이 다만 안횡비직을 증득하였으니, 불법을 알려면 안횡비직만 배우면 된다. 눈 돌에 코 하나는 천만의 부처님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며 누구나 불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의 '안횡비직' (부분)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모든 중생이 참나를 찾는 본질을 대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53)767-0274

정혜숙 기자

불교문화관광콘텐츠 디자인展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월 5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10월 5일까지 '불교문화관광콘텐츠 디자인'전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2013년~2015년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3차에 걸쳐 개발한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그동안 △1차 단청, 꽃살문, 패턴을 △2차 사물, 사천왕, 불교문화유산 인포그래픽, 디자인, 패턴을 △3차에서는 불교문화유산에서 기록된 동물 관련 설

화, 디자인, 패턴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불교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본디나 개발 상품도 선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그동안 한국 전통불교의 문화유산에서 추출한 디자인, 패턴, 설화를 응용해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개발 상품을 홍보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02)2031-2000

정혜숙 기자

부여 무량사 '3회 힐링음악회'

9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내에서

부여 만수산 무량사(주지 제민)가 극락전 '아미타삼존 불 후불탱화 점안식' 및 '제3회 힐링산악음악회'를 9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내에서 연다.

'하늘 아래 산사, 자연과 음악에 춤추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설운도, 박상철, 유지나, 박정식, 도신 스님, 백재 가야금 연주단 등이 출연한다.

주지 제민 스님은 "천년고찰 무량사에서 열리는 가을 산악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정한 마음의 힐링을 하고 돌아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041)836-5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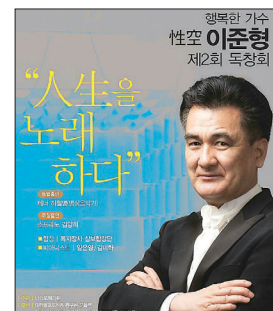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이준형 독창회 '인생을 노래하다'

9월 21일 오후 7시 아트밸리 예술극장서

"가수를 꿈꾸던 소년이 열정 하나만으로 합창단 지휘자와 미완성의 성악가로 많은 무대에서 노래 부르기를 30여년. 뒤늦은 나이에 중앙대 예술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용기를 내어 첫 독창회를 열었으나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금 용기를 내어 행복한 가수 '인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제2회 독창회를 준비했습니다."

성악가 이준형 씨의 공연 초대장에는 일기장 같은 자신의 독백이 적혀 있다. 그의 30년 음악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하다. 성공 이준형 씨가 9월 21일 오후 7시 구로



이준형 제 2회 독창회 포스터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제2회 독창회'를 갖는다. 2009년 1회 독창회 이후 6년 만이다.

이 씨는 이번 독창회에서 사랑 그리움 이별 평화 등으로 주제를 나눠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무정한 마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불법인연 늙습니다' 등의 곡을 선보인다. 육지장사와 삼보합창단이 함께하며, 테너 허철영이 특별출연, 소프라노 김양희가 우정 출연을, 피아노는 양은영과 김미희가 연주한다. 010-9357-5324

정혜숙 기자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 제목 : 實戰四柱 강좌

●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 강의일시 : 매주 월 ~ 화, 목 ~ 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 수강료 : 월 20만원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칠명,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청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청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청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배우면 감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JJUN Heating System Module

“ 쫄 ”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특이점

-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엔지니어링
-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 ISO 90001:2008 인증업체
-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차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흥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